

《엽서》 구판과 신판의 오묘한 맛 《엽서》의 중독성 ‘영복주’ 로 이어지다

글_박중서

1. “술은 뭘로 드릴까요?”

연말 내내 망년회 자리마다 식당 종업원에게 들은 질문이다. “어…… 소주…… 그게 이름이 뭐더라?” 동행인이 선뜻 술 이름을 기억 못할 경우, 이제는 내가 슬쩍 끼어들 차례다. “아니, 또 신영복 술이야?” 아닌 게 아니라 이번 망년회 때에는 그 ‘영복주’가 대세였다. 그래도 버젓한 상품명이 있는데, 단지 상표에 글씨만 써준 양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고 나무라는 사람도 간혹 있다. 하지만 우스운 사실은 지금껏 여러 번 망년회 자리에서 그 술을 주문하는 사람은 많았어도, 그 상품명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다. 대개는 ‘어…… 그게 뭐더라?’ 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다들 겉으로는 아닌 척 해도 속으로는 상품명보다는 글쓴이의 이름을 더욱 의식한 까닭이 아닐까. 물론 나 역시 별다른 악의는 없다. 다만 굴요리와 삼겹살과 닭볶음 옆에 며칠째 나란히 놓인 그 수많은 ‘영복주’ 병을 보며, 아니, 그 상표의 글씨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맨 처음 생각은 역시 대학 시절 처음 읽은 구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관한 것이다. 친구들과의 저녁 술자리를 앞둔 채 강의동 앞 벤치에 앉아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햇빛에 책을 비춰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만 해도 신영복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많았다. 덕분에 나 역시 난생 처음으로 겪은 낯설면서도 처절한 감동을 여기저기 아는 척 하며 흘쩍거리고 다닐 수 있었고, 그랬던 불과 10여 년 전에 비하면 신영복은 지금 무지막지 대중화되었다. 물론 그의 여러 가지 미덕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먼발치에서건 가까이에서건 그를 선뜻 ‘스승’이라 여기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되고, 평소에는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도 그의 신간이 나오면 선뜻 구입하(거나, 구입하겠다고 맹세하)며, 심지어 그의 글씨가 상표에 등장한다는 이유로 특정 소주를 열심히 시켜 마시는, “신영복에 열광하는 사회”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반갑다기보다는 오히려 낯설어 보이기 때문이다.

2. 그리고 보면 ‘영복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열광을 상징하는 물건은 바로 구판 《엽서》였다. 1993년에 나오자마자 절판되었다는 이 책을 찾으러 여기저기 헌책방을 수소문하는 사람이 크게 늘자, 한때 헌책방에서도 집어가는 사람이 없던 ‘악성 재고’가 졸지에 ‘희귀?절판본’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스캔본이 있다느니, 혹은 인터넷에서 10만 원에 거래된다는니 소문이 무성했지만 과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대부분의 예상과는 달리 중판(초판 2쇄)까진 적은 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최소한 수천 부 가량은 돌아다니지 않을까.

나 역시 그 《엽서》 구판 한 권을 10여 년 전에 어느 헌책방에서 구입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책이 조만간 희귀본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그저 저자의 친필이란 것이 신기해 보였고, 또 ‘청구회 추억’을 비롯한 일부 내용은 그때까지 《감옥》 구판에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감옥》 신판에 그 내용과 사진 일부가 수록되었고, 곧이어 《엽서》 신판이 나왔다는 걸 알고 좀 약이 올랐다.

● 이 글을 쓴 박중서는 에이전트와 출판사 등 출판계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지금은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는 《젠들 매드니스》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미국 최고의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이 있다.

《엽서》 신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크기’다. 구판이 위아래로 길쭉(210x295)했다면, 신판은 오히려 좌우로 넓적(225x280)하다. 구판이 엽서의 내용만 확대해 실었다면, 신판은 색 아래고 너털거리는 엽서의 윤곽까지 모두 수록했다. 신판에서는 수록된 엽서의 작성일(년, 월, 일)을 최대한 밝혀두고, 구판에서 잘못된 순서를 바로잡기도 했다. 가령 구판에서 1983년 말의 것으로 간주된 “세모에 어머님께”는 신판에서 1984년 말에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딘가 서툰 면서도 은근한 멋이 있는 문인화를 연상시키는 저자의 그림 역시, 책 곳곳에 적절히 안배되어 있던 구판에 비해, 신판에서는 작성일 순으로 배열되었다. 세월의 흔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검열필’ 도장이 아닐까. 구판의 경우, 흐릿한 볼펜 글씨를 최대한 또렷이 보여주기 위해 색감을 약간 조절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편지마다 찍혀 있던 붉은색 ‘검열필’ 도장 역시 섬뜩할 정도로 또렷했다. 하지만 신판에서는 인위적인 색감 조절을 자제한 탓인지, ‘검열필’ 도장 역시 저자의 글씨나 종이와 마찬가지로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듯 흐릿하게 색이 바랬다. 심술긋게도 편지 한복판에 쿵쿵 찍혀 있던 ‘검열필’ 도장조차도 1975년 초부터는 붉은 무궁화 ‘검’ 도장으로, 그리고 1983년 초부터는 푸른 무궁화 “검” 도장으로 모양과 색깔이 바뀌며 점차 구석의 여백으로 밀려난다.

인위적인 색감 조절이 없어지자,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이런저런 ‘흔적’ 들도 모습을 드러낸다. 가령 “봄철에 어머님께”(73년 3월 22일자)에는 ‘검열필’ 도장을 찍고 채 마르기도 전에 엽서를 봉했는지, 펼친 면에서 여러 군데 붉은 자국이 묻어 있다. “아버님께: 고시와 처칠”(72년 5월 25일자)의 경우, 구판에서는 오른쪽 위에 뭔가 도장이 찍혀 있긴 하지만 무슨 글씨인지는 읽을 수 없었는데, 신판에서는 “용건만 간단 기입 요망함 / 서신계 백”이라는 색 바랜, 그리고 약간은 역설적인 경고문이 나타난다.

대강 훑어보니 구판 수록 내용 중 20여 편이 빠진 대신, 신판에서는 전에 없던 내용이 10여 편 덧붙여진 듯하다. 물론 《감옥》 신판에는 거의 다 수록된 내용이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1부인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시절 편지 모음으로, 배열 순서가 예전과는 달라서인지 유난히 낯설어 보였다.

그래서였을까? 약간은 뼈딱한 마음으로 집어든 《엽서》 신판을 펼치자마자 몇 페이지 뒤에 나온 ‘청구회 추억’을 다시 보며 한참 동안이나 책에서 눈을 떼 수 없었던 까닭은. 화장지로 쓰라고 하루에 두 장씩 건네준 갱지 위에 흐릿한 볼펜으로 꼭꼭 눌러쓴 그 ‘소주병’ 글씨 하며, 지금은 다들 중년을 넘겼을 그 꼬마들과의 사연 하며……. 젠장, 이진 뭐……. 중도에 책을 덮을 수가 있어야지.

중독성. 그건 참 문제다. 《엽서》건, 아니면 그 ‘영복주’ 건 말이다. **한문**